

잠재계층분석을 통한 청소년의 위기 유형 분류

양미진(楊美珍)*

이자영(李茲嶸)**

손재환(孫在煥)***

논문 요약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위기 유형을 잠재계층분석 방법으로 분류하고자 하였다. 피험자는 12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 3,526명이었으며, 조사도구는 위기상황실태조사 척도와 정신건강척도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요인은 5가지로 심각한 수준의 '비행', 집단따돌림 등의 '대인관계', 가벼운 수준의 '일탈', '부모갈등', '학업부적응'이었다. 또한 위기 요인 취약성 범주에 대한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의 계층이 확인되었으며 각 계층의 조건 확률을 살펴본 결과 계층1은 대인관계 위기가 두드러졌고, 계층2는 모든 위기요인에 취약해 고 위험 계층으로 간주되었다. 계층3은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일탈 중심 위기가 두드러졌으며, 계층4는 부모갈등 위기가 두드러졌고, 마지막 계층5는 취약한 위기요인이 거의 없는 저 위험 계층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각 계층에 따라 정신건강적 특성과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계층2에서 4가지 하위 정신건강 모두에서 취약하게 나타났으며 학교밖청소년과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이 다른 계층에 비해 계층 2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위기청소년, 잠재계층분석

I. 서론

어느 사회나 시대를 막론하고 청소년 문제는 그 사회의 주된 관심사이며, 이들의 문제는 해당 국가들이 해결해야 하는 주된 과제이다. 이러한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 한국청소년상담원 조교수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 교신저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선임상담원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2009년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2009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범죄 혐의로 적발된 20세 미만의 소년범은 13만 4992명으로 2007년 8만 8104명보다 1.5배 늘었다. 특히 살인과 강도, 강간, 상해 등 강력 범죄로 적발된 소년범은 2007년 2만 5203명에서 2008년 3만 7083명으로 늘어났다. 학업중단의 경우도 2008년에는 53,044명으로 전체학생의 3.4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최근 3년간의 경향을 살펴보면 2005년에는 2.87%, 2006년에는 2.95%, 2007년에는 3.07%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가출의 경우에도 2007년 기준으로 가출청소년의 수는 12,240명이며, 그 밖에 중고등학생 소년소녀가장은 2,105명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학교폭력, 성폭력, 자살, 약물남용 등 청소년의 적응과 사회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청소년은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으며(지승희, 양미진, 이자영, 김태성, 2006) 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한다는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위기청소년의 예방과 지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양육과 주된 정서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정은 물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유익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청소년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고 보호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정부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또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조와 상호보완적인 지원을 통해 청소년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최근 청소년 위기 문제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개입이 높아지면서 많은 자원이 청소년 지원정책에 투입되고 있다(김형수, 최한나, 2009). 정부는 위기청소년 지원시설과 지원 정책 현황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등을 통해 제안된 실태와 대안에 기초해 지역사회통합 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Net: 이하 CYS-Net)를 구축하여 통합적인 사회안전망 지원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CYS-Net이란 위기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의 관점에서 보고 이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구축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연계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다.

위기청소년의 개념은 미국의 교육 수월성 추구를 위한 국가위원회 보고서가 발단이 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미국의 교육 수월성 추구를 위한 국가위원회는 학업중도탈락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위기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이봉주, 김동일, 정익중, 유순덕, 2008). OECD회원 국가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위기청소년 개념 역시 학업부적응 문제를 포함하여 위기청소년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OECD(1995)에서는 위기청소년(youth at risk)을 '학교에서 실패하고 성공적으로 직업이나 독립적인 성인의 삶으로 이행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 그 결과 사회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못할 것 같은 청소년'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하지만,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문제에 접근 방식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지승희 외, 재인용, 2006). 흔히 위기(risk)는 이미 표출된 행동 문제에 따라 정의된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정의는 매우 다양한 청소년의 문제에 대한 공통 요인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주며 그 결과 위기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위기청소년 관련 다수의 연구는 발생원인인 위험요소에 관심을 갖고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개인 내적인 특성 뿐 아니라 이들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 즉 가정, 또래, 학교 등에 초점을 둔 원인적 접근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기상황을 발생시키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가정의 경제적 문제, 부모와의 갈등, 가족의 구조적 결손 등 가정문제(김연정, 2004; 유성경, 이소래, 송수민, 2000; Bogenschneider, Riley, 1994; Lipsey, Derzon, 1999)와 낮은 학업성적(권지은, 1998) 및 학업수행 실패 등의 학교관련 문제 등이 위험요소로서 설명되고 있으며 또래와 관련 문제로는 비행 및 일탈 행동을 하는 또래와의 접촉(지승희, 2003)과 또래집단의 동조압력(김선남, 1994; 한상철, 2001), 또래집단과의 비행유대(권지은, 1998)등이 있다. 지승희 등(2006)은 위기를 유발하는 위험요소에 문제행동 영역을 포함하였으며 가출, 무단결석, 폭력(가해, 피해), 가정폭력(가해, 피해), 집단따돌림, 괴롭힘, 자살 시도, 인터넷 중독 및 게임과다, 절도 및 갈취, 성매매, 성폭력, 습관적인 음주 흡연, 약물 등 유해물질 사용 등으로 범주화 하였다. 이러한 문제행동은 청소년의 일탈 및 비행행동으로 문제행동 자체가 위기상황을 더 가중시키는 위험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위기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정도가 심해지거나 약화되는 연속선상의 단계라고 설명하고 있는 Burt(1992)의 설명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발생한 위기상황에 대한 조기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위기상황이 다른 위기상황에 노출시킬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이에 따라 청소년의 위기상황을 복합적인 문제로 발달하고 위기수준은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구분용(2005)은 위기청소년을 일련의 개인, 환경적 위협에 노출되어 행동 심리적으로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적절한 개입 없이는 정상적인 발달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즉 가출, 학업중단 및 실업, 폭력, 성매매, 약물 오남용 등의 비행, 그리고 범죄, 불안, 우울 등의 심리적 장애, 자살 위험이 높은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이라 보았다. Bronfenbrenner(1979)는 가족환경, 또래 집단, 학교 환경, 지역사회 위협 환경 등 개인 발달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맥락 내에서 위기청소년 이해에 대한 광범위한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생태학적 관점은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을 예측할 수 있게 하며 사전에 이를 예방하고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생태학적 관점을 반영하여 지승희 등(2006)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위기상황을 문제행동 영역, 환경영역, 정신건강영역으로 분류하고 위기상황별로 위기수준을 정의하였다. 국가청소년위원회(2007)의 경우 각 지역별 위기청소년 경향 및 CYS-Net지역자원 조사를 실시하여 위기 청소년을 크게 4가지 상황에 처한 경우로 구분하였으며 그 세부 유형을 함께 제시하였다(강석영, 김동민, 하창순, 재인용, 2009). 4가지 위기상황은 첫째, 개인적 위기상황, 둘째, 가족적 위기 상황, 셋째, 교육적 위기상황, 넷째, 사회적 위기상황으로 나누었다. 이는 복지 지원법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보다 세분화 되어있다.

이러한 위기청소년의 정의는 일정한 청소년의 특성이나 처한 환경적인 상황에 대해 붙여진 명칭이며 청소년들의 적응적 발달을 도울 것으로 가정되고 있는 발달적 자원(development asset)들 중 외적 요인의 핵심이 되는 가족, 친구, 교사, 사회기관 등의 실질적인 지원이 없거나 가정, 학교 등 보호망을 이탈한 청소년을 염두에 두고 개념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에서는 위기청소년의 범주와 하위 유형을 단선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 청소년들이 입체적 혹은 복합된 위기상황을 겪는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그래서 위기를 발달적이며 단계적인 것으로 보려는 관점을 함께 고려하게 되었는데 이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좀 더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관점이 제공되었다 할 수 있다.

McWhirter(2004)는 사회 경제적 수준, 학교 및 가족환경, 사회관계, 스트레스 요인 등의 영향 정도에 따라 최저 위기에서 위기행동까지 5단계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따르는 국내 모델의 경우에도 위기를 위계적 단계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으며, 위기청소년을 어느 특정집단이라기 보다는 위기의 유형, 발달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에 노출된 청소년 집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이창호, 김택호, 정찬석, 박재연, 2005). 구본용(2005)이 제시하고 있는 단계별 위기분류 모델에서 역시 몇 가지 요인을 인접한 위기로 묶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빈곤, 양육방식, 낮은 학업성취기대, 그리고 유해매체 환경 등을 함께 묶어 위기 전조 단계로 보고 있다. 가정 문제(가족 간 불화, 학대, 부모이혼 및 사망 등)와 집단 따돌림과 같은 학교문제를 위기 표식 단계로 보았다. 무단결석 및 학교폭력 가해, 낮은 학업성취, 자살시도와 성매매 등을 문제행동 단계로 보았으며 학업중단, 가출, 범죄, 자살 등을 위기 결과 단계로 보았다. 이러한 단계 모형은 각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기 상황들을 서로 상관이 높은 인접한 위기로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들을 중복하여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즉, 위기요인들이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상호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단일한 특정 요인 보다 위기 요인이 누적된 효과가 기능적 손상을 더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위기양태가 복합적이므로 개입과정에서도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이상 기존 위기청소년 연구들을 살펴보면 위기청소년의 유형을 연구자의 이론적 배경에 따라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개념적 방식의 위기 유형 분류는 위기에 대해 다양하게 접근함으로써 다각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다양한 정의로 인해 서비스 정책 수립이나 통합적 개입을 위해 필요한 명확한 진단 기준 마련과 이에 근거한 수치화된 통계 자료를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즉, 개념적인 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의 문제 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어떻게 유형이 분류되는지, 각 위기 유형에 따라 위기청소년 수는 얼마나 되는 지 등 수치화된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지원과 유형별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개념적인 위기 분류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통계적인 진단 분류와 통계화된 정보도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방식

으로 위기청소년 문제에 따른 유형 분류와 각 유형 따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위기 요인을 파악하고 개인의 위기로인 취약성에 따라 위계계층이 어떻게 집단화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Larzarsfeld(1950)에 의해 개발되고, Goodman(1972)에 의해 완성된 확률모형인 잠재계층분석(LCA: Latent Class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잠재계층분석은 관찰된 변인들(observed variables) 사이의 관계를 유발하는 잠재적인 공통요인(latent common factor)을 규명하는 방법이다. 즉 관찰된 변인과 관찰되지 않는 잠재적 변인의 확률적 관계를 파악하고 각 사례들이 잠재변인의 각 계층(class)에 속할 확률을 도출한다.

이러한 면에서 위기의 진단적 분류와 함께, 각 개인이 어느 위기 분류에 속하는 지 확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잠재계층분석(LCA)이 매우 적절하다. 즉 위기로인에 따라 어떤 위계계층이 형성되어 있으며 각 개인의 위기 특성에 따라 어떤 계층에 속하는지 확률을 구할 수 있어 개인 별 위기 진단에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잠재계층분석(LCA) 방법을 사용하여 위기로인 취약 성향에 따라 위기 계층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파악하고 각 계층별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피험자

2008년 5월 ~ 6월까지 전국 초, 중, 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학교밖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 3,52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하였다. 재학 청소년은 16개 광역행정 지역 40개 학교로부터 표집되었으며 총 2,541명이었다. 그 중 초등학교생 738명(24.8%), 중학생 696명(23.4%), 인문계 고등학교생 797명(26.7%)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생 310명(10.4%)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학교밖 시설 청소년은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서 시설이나 기관(예: 쉼터, 상담센터)에 속해 있는 12세에서 19세의 청소년으로 전국적으로 표집되었으며 총 439명(14.7%)이 참여 하였다. 성별은 남자가 1,917명(54.6%)이었으며, 여자는 1,593명(45.4%)이었다. 이들의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대도시가 1,551명(44.4%), 중·소도시가 1,362명(39.0%) 그리고 읍·면 지역이 579명(16.6%)였다.

2. 설문도구

1) 위기상황실태조사척도

생태학적 관점에서 위기문제를 정의한 지승희 등(2006)의 연구를 참조하여 위기영역을 크게

개인문제행동영역과 환경영역으로 구분하여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척도를 구성하였다. 개인문제행동영역으로는 가출경험, 무단결석, 폭력(가해/피해), 가정폭력(가해/피해), 집단 따돌림, 괴롭힘, 자살시도, 인터넷 중독 및 게임과다, 절도, 갈취, 성매매, 성폭력, 습관적인 음주·흡연, 약물 등 유해물질 사용이 포함되었으며, 환경영역에는 경제적 수준, 유기 및 방임, 부모와의 갈등, 주변 유해환경 노출, 문제행동을 보이는 친구들과의 어울림 그리고 교사와의 갈등이 포함되었다. 문항 수는 총 30문항이었으며 4점 Likert로 구성되어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2점은 '약간 그렇다', 3점은 '그렇다', 4점은 '매우 그렇다'로 표시하게 하였다.

2) 위기청소년정신건강측정설문지

위기청소년 수준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위기청소년 정신건강 척도를 사용하였다. 위기청소년 정신건강척도는 한국의 국가청소년위원회(2005)에서 개발한 척도로써, 원래 문항 수는 우울 6문항, 불안 5문항, 공격성 7문항, 부정적 자존감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정신건강 영역별 문항수가 3문항으로 축소된 Kim, Hong, Yoon(200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 신뢰도는 우울 .84, 불안 .77, 공격성 .66 그리고 부정적 자존감이 .68이었다.

3. 연구절차

청소년 위기를 구성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잠재계층분석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위기상황실태척도 30개 문항에 대해서 주성분분석 방식과 사각회전방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으로 문항을 압축하는 것이 잠재계층분석에 효율적인 이유는 분석 문항 수가 많게 되면 신뢰롭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0개 문항을 잠재계층분석으로 실시할 경우 가능한 분석 패턴이 2^{30} 만큼 존재하게 되어 분석 과정이 매우 복잡해지고 신뢰롭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위기상황실태척도 문항을 요인분석을 통하여 몇 가지 핵심적인 요인들로 문항을 압축하고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개인들의 위기요인 취약성에 따라 잠재계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각 위기요인 점수들을 중앙치를 기준으로 취약성의 높고 낮음으로 범주화하였다. 중앙치로 구분한 이유는 각 요인들의 점수가 극단 값을 가지고 있어 다소 부적 편포하는 경향을 보여 중앙치가 평균보다 대표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잠재계층분석은 Mplus 프로그램(Muthén & Muthén, 2001)을 사용하였으며, 우도비 카이제곱 검증으로 모형 합치도를 구하고 베이지안 준거기준(BIC) 등으로 잠재계층 수를 판단하였다. 또한 위기요인 높낮이 패턴에 따른 잠재계층 조건반응 확률을 구하였다.

또한 위기 잠재계층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정신건강 하위척도 점수간의 차이를 다변변량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으며 성별, 학년 등 인구학적 변인들과의 교차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1. 위기상황실태조사척도 요인분석결과

30개의 문항 중 다른 여러 요인에 요인부하 값이 .3이 넘거나 해석의 의미가 모호한 문항 5개는 삭제하였다. 최종 25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고유치 1이상인 요인이 5개가 추출되었으며 전체변량의 55.6%를 설명하였다

1요인은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다.', '친구 또는 선후배를 종종 괴롭힌다.', '성매매를 한 적이 있다.', '성폭력을 한 적이 있다.', '환각제나 가스, 본드와 같은 약물을 사용한 적이 있다.' 등의 내용으로 비행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2요인은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친한 친구들이 나를 따돌린다.', '반 전체 아이들이 나를 따돌린다.', '친구 또는 선후배한테 종종 괴롭힘을 당한다.', '친구 또는 선후배한테 종종 폭행을 당한다.', '나는 친구가 없다.' 등의 내용으로 대인관계 부적응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3요인은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는 종종 술, 담배를 한다.', '가출을 한 적이 있다.', '학교를 무단으로 결석한 적이 있다.', '나에게는 문제 행동(가출, 학교 폭력 등)을 보이는 친구가 있다.', '선생님과 나는 사이가 좋지 않다.', '우리 동네에 유흥업소(여관, 술집 등)가 많다.' 등의 내용으로 비교적 경미한 일탈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4요인은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님이 나에게 자주 심한 욕설이나 신체적 폭력을 가한다.', '부모님은 나를 버렸으며, 전혀 돌보아주지도 않는다.', '부모님과 나는 갈등이 심하다.', '나는 부모님을 자주 때리거나 심한 욕설을 한다.' 등의 부모갈등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5요인은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는 공부하는 것이 재미없다.', '나는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공부를 못한다.' 등의 학업부진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표 1> 위기척도 문항의 회전된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부하량				
	1요인	2요인	3요인	4요인	5요인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5만원 이상)을 훔치거나 빼앗는다.	.756	.078	.246	.171	-.032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5만원 미만)을 훔치거나 빼앗는다.	.726	.022	.341	.180	-.016
성폭력을 한 적이 있다.	.671	.298	-.077	.269	.047
나는 친구 또는 선후배를 종종 폭행한다.	.669	.252	.243	-.060	.072
성매매를 한 적이 있다.	.625	.220	.032	.305	.035
환각제나 가스, 본드와 같은 약물을 사용한 적이 있다.	.548	.253	-.076	.276	.077
나는 친구 또는 선후배를 종종 괴롭힌다.	.524	.281	.291	-.104	.081
친한 친구들이 나를 따돌린다.	.250	.734	.037	.155	.017
반 전체 아이들이 나를 따돌린다.	.301	.710	.076	.215	.022
나는 친구가 없다.	-.009	.675	.117	.224	.080
친구 또는 선후배한테 종종 괴롭힘을 당한다.	.346	.646	.163	-.021	.047
친구 또는 선후배한테 종종 폭행을 당한다.	.456	.592	.115	.082	.029
나는 종종 술, 담배를 한다.	.141	-.049	.729	.117	.154
가출을 한 적이 있다.	.133	-.012	.721	.292	.017
학교를 무단으로 결석한 적이 있다.	.236	.014	.653	.237	.095
나에게는 문제 행동(가출, 학교 폭력 등)을 보이는 친구가 있다.	.059	.177	.614	.062	.119
우리 동네에는 유흥업소(여관, 술집 등)가 많다.	.038	.143	.389	-.028	.083
선생님과 나는 사이가 좋지 않다.	.069	.179	.386	.118	.342
부모님이 나에게 자주 심한 욕설이나 신체적 폭력을 가한다.	.188	.191	.193	.735	.034
부모님은 나를 버렸으며, 전혀 돌보아 주지도 않는다.	.276	.145	.209	.662	.050
부모님과 나는 갈등이 심하다.	-.014	.106	.283	.607	.236
나는 부모님을 자주 때리거나 심한 욕설을 한다.	.446	.191	.001	.603	.040
나는 공부하는 것이 재미없다.	.031	-.018	.105	.059	.854
나는 공부를 왜 해야 하는 지 모르겠다.	.068	.045	.104	.061	.816
나는 공부를 못한다.	.001	.059	.192	.076	.675

2. 위기요인 범주에 대한 잠재계층분석 결과

청소년들의 위기요인 취약성 범주에 대해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였다. 계층 모형 판단을 위해 우도비 카이제곱(likelihood ratio chi-square test)으로 모형 합치도(goodness of model fit)를 검증하였다. 3계층, 4계층, 5계층 모형을 검토한 결과 5계층 모형에서 유일하게 우도비 카이제곱 검증에서 모형 합치도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2.440$, $df=2$, $p>.05$). 계층 선정을 위한 2차 기준인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BIC)와 Aikake' information criterion(AIC) 값은 작게 나타나는 것이 모형 선택에 유리한 기준이 되지만, 각 계층 모형간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5계층 모형이 위기청소년의 잠재계층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위기청소년 잠재계층 모형 검증

모형	χ^2	df	BIC	AIC	Adjusted BIC
3계층	49.65	14	20,073.93	19,969.51	20,019.91
4계층	18.94	8	20,090.51	19,949.23	20,017.43
5계층	2.44	2	20,124.43	19,946.30	20,032.29

<표 3> 각 계층별 조건 반응 확률

계층	위기로인 취약성 반응 패턴					배정 확률					빈도 (명)
	비행	대인 관계	일탈	부모 갈등	학업 부적응	계층1	계층2	계층3	계층4	계층5	
계층1	0	1	0	0	0	0.92	0.01	0.07	0.00	0.00	111
	0	1	0	0	1	0.87	0.05	0.08	0.00	0.00	61
	0	1	0	1	0	0.89	0.11	0.00	0.00	0.00	48
	1	0	0	0	1	0.30	0.08	0.16	0.20	0.26	35
	0	1	0	1	1	0.65	0.35	0.00	0.00	0.00	33
	1	1	0	0	0	0.84	0.06	0.10	0.00	0.00	32
	1	1	0	0	1	0.67	0.22	0.11	0.00	0.00	21
	1	0	0	1	0	0.42	0.25	0.00	0.24	0.10	19
	1	1	0	1	0	0.58	0.42	0.00	0.00	0.00	15
										계	375
계층2	1	1	1	1	1	0.00	1.00	0.00	0.00	0.00	121
	1	0	1	1	1	0.00	0.92	0.00	0.08	0.00	90
	0	1	1	1	1	0.00	1.00	0.00	0.00	0.00	88
	1	1	1	1	0	0.00	1.00	0.00	0.00	0.00	62
	1	1	1	0	1	0.00	0.73	0.28	0.00	0.00	45
	1	0	1	1	0	0.00	0.87	0.00	0.13	0.00	40
	0	1	1	1	0	0.00	1.00	0.00	0.00	0.00	36
	1	0	0	1	1	0.20	0.50	0.00	0.28	0.03	24
	1	1	0	1	1	0.24	0.76	0.00	0.00	0.00	22
										계	528
계층3	0	0	1	0	0	0.00	0.03	0.51	0.40	0.06	226
	1	0	1	0	0	0.00	0.15	0.74	0.10	0.01	66
	1	0	1	0	1	0.00	0.33	0.53	0.13	0.00	61
	0	1	1	0	1	0.00	0.42	0.58	0.00	0.00	56
	0	1	1	0	0	0.00	0.19	0.81	0.00	0.00	51
	1	1	1	0	0	0.00	0.46	0.54	0.00	0.00	32
										계	492
계층4	0	0	1	0	1	0.00	0.07	0.38	0.53	0.02	220
	0	0	1	1	1	0.00	0.36	0.00	0.64	0.00	154
	0	0	0	1	0	0.23	0.02	0.00	0.45	0.29	141
	0	0	0	1	1	0.14	0.06	0.00	0.69	0.10	118
	0	0	1	1	0	0.00	0.25	0.00	0.75	0.01	102
											계
계층5	0	0	0	0	0	0.09	0.00	0.02	0.09	0.80	879
	0	0	0	0	1	0.12	0.01	0.04	0.27	0.56	360
	1	0	0	0	0	0.30	0.02	0.12	0.08	0.48	69
										계	1,308

1='위기 취약성 높음', 0='위기 취약성 낮음'

개인들의 위기요인 취약성에 따라 어느 잠재계층에 속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계층별 조건반응확률을 산출하였다. 조건반응확률은 개인들 반응 패턴에 따라 산출되는 계층 배정 확률이다. 예를 들어 <표 3>에서, 특정 청소년이 비행, 대인관계, 일탈, 부모갈등, 학업부적응 위기요인에 취약할 때 계층2에 배정되는 확률은 100%이다.

각 계층의 조건반응확률을 살펴보면, 계층1에 배정 확률이 높은 반응 패턴들은 내용면에서 집단따돌림, 외로움 등 대인관계 위기 요인을 중심으로 비행과 부모갈등, 학업부적응 위기요인들이 동시에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2는 전반적으로 모든 위기 요인이 높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수준의 위기 계층으로 생각된다. 계층3은 가출, 흡연 등 일탈 요인 중심의 반응 패턴이 크게 두드러지며 대인관계와 비행, 학업부적응이 동반 반응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계층4는 부모와의 심한 갈등 요인 중심의 반응 패턴이 두드러지며 일탈과 학업부적응이 동반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5는 위기요인 반응이 모두 낮거나 1개 정도의 반응이 나타나 위기 문제가 낮은 계층으로 보여진다.

각 계층의 반응패턴을 정리해서 살펴보면, 위기요인에 따른 잠재계층은 위기의 양적인 정도와 위기 유형에 따라 크게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 위기의 양적인 정도는 계층2와 계층5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계층2는 모든 위기요인에서 높게 반응하는 패턴을 보이며, 계층5는 대부분의 위기요인에 낮게 반응하는 패턴을 보여 고(高) 위험 계층과 저(低) 위험 계층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기 내용에 따라 계층1, 3, 4가 구분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계층1은 대인관계 문제가 두드러지며, 계층3은 가출 등의 일탈문제, 계층4는 부모와의 갈등이 주된 위기 내용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3. 위기잠재계층별 집단 특성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나누어진 위기잠재계층 집단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정신건강 및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위기잠재계층 집단에 따른 정신건강 하위척도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위גיע층집단별 정신건강 하위척도(우울, 불안, 공격성, 자존감)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4>와 같다. 다변량분석 결과 정신건강 하위척도 점수는 위גיע층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가졌다(Wilks $\lambda=.702$, $F(16, 10360.314)=79.547$, $p<.001$).

<표 4> 위기계층집단에 따른 정신건강 하위척도의 평균, 표준편차

구분	계층1 (n=373)		계층2 (n=518)		계층3 (n=487)		계층4 (n=724)		계층5 (n=1297)	
	M	SD	M	SD	M	SD	M	SD	M	SD
우울	4.76	1.66	5.99	2.26	4.27	1.60	4.69	1.77	3.70	1.09
불안	6.34	2.06	7.37	2.21	5.93	2.05	6.57	1.71	5.07	1.71
공격성	4.67	1.59	6.05	2.15	4.95	1.73	4.91	1.16	4.07	1.16
자존감	6.57	2.18	7.52	2.18	5.88	2.08	6.71	1.82	5.11	1.82

위기계층집단에 따른 정신건강 하위척도별 차이는 <표 6과>같이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어느 위기계층집단에서 정신건강 하위척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Scheffe 방식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계층 2와 계층 5는 모든 하위 척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계층1, 3, 4는 정신건강 하위척도에 따라 조금씩 다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5> 위험수준 계층별 정신건강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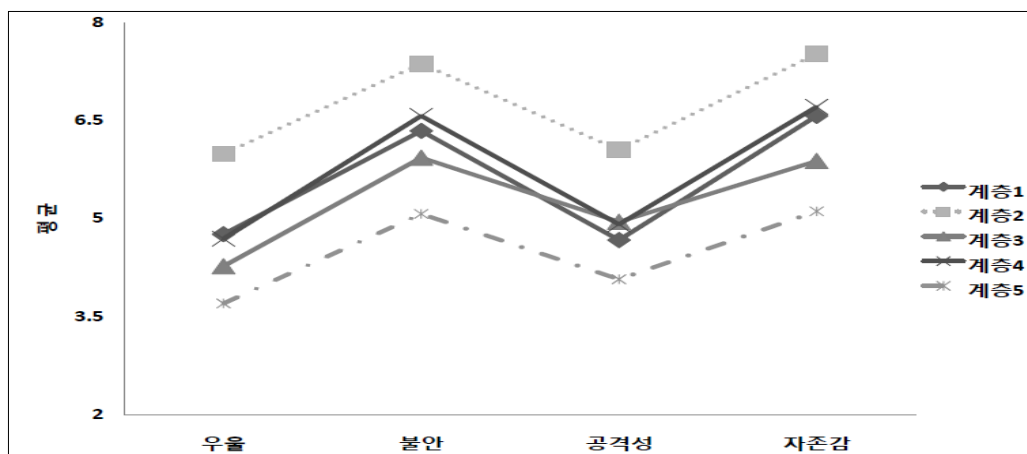
구분	종속변인	자승합	df	평균자승	F	사후검증(Scheffe)
우울	우울	2045.15	4	511.29	198.62***	2계층 > 1계층, 4계층 > 3계층 > 5계층
	불안	2384.80	4	596.20	152.98***	2계층 > 4계층, 1계층 > 3계층 > 5계층
	공격성	1520.40	4	380.10	156.75***	2계층 > 3계층, 4계층, 1계층 > 5계층
	자존감	2681.13	4	670.28	158.35***	2계층 > 4계층, 1계층 > 3계층 > 5계층
오차	우울	8737.04	3394	2.57		
	불안	13227.16	3394	3.90		
	공격성	8229.84	3394	2.43		
	자존감	14366.75	3394	4.23		
전체	우울	78380.00	3399			
	불안	138120.00	3399			
	공격성	86191.00	3399			
	자존감	143014.00	3399			

*** p<.001

<그림 1>은 각 위기계층집단에 따른 하위 척도별 평균점수 프로파일이다. 5개 잠재계층 집단별 정신건강 특징을 살펴 볼 때, 계층2는 모든 정신건강 하위척도에서 다른 계층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다. 반면 계층5는 모든 하위척도에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위기의 양적인 측면으로 잠재계층을 구분할 때, 계층2와 계층5가 고 위험 위기계층과 저 위험 위기계층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계층1, 3, 4는 모든 하위척도에서 계층2 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계층5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정신건강 차이는 잠재계층이 위기의 양적인 측면에서 구분된다고 가정할 때, 계층1, 3, 4가 중간 수준의 위험 계층으로 분류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계층1, 3, 4는 하위척도별로 조금씩 다른 정신건강 프로파일을 나타내고 있다. 우울, 불안, 자존감 척도에서는 계층1(대인관계 문제중심), 계층4(부모갈등 문제중심)가 계층3(일탈 문제중심)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공격성 척도에서는 계층1, 3, 4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프로파일 특성의 차이는 위기 문제 내용별 특성에 따라 또한 잠재계층이 구분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1> 위기잠재계층 집단별 정신건강 하위척도점수 프로파일

위기계층별 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기계층별 빈도와 성별, 거주지역, 학년, 경제수준 빈도와와의 교차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에서는 계층2와 계층3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빈도를 가졌다($\chi^2=75.06(df=4), p<.001$). 즉 고 위험 위기계층과 일탈중심의 계층에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빈도를 보였다. 반면 저 위험 계층으로 여겨지는 계층5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빈도를 보였다.

거주지역에서는 대도시와 읍면지역에서 중소도시 보다 계층3에서 많은 빈도를 보였다($\chi^2=34.19(df=8), p<.001$). 이것은 흡연, 가출 등의 일탈문제가 대도시와 읍면지역에서 중소도시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년에서는 학교밖청소년과 재학 청소년간에 계층2에서 큰 빈도차이를 보였다($\chi^2=437.23(df=16), p<.001$). 학교밖청소년들이 재학 청소년들에 비해 고 위험 계층으로 여겨지는 계층2에 현저하게 많았으며, 반면 저 위험계층으로 여겨지는 계층5에서는 학교밖청소년들이 현저하게 적은 빈도를 보였다.

상, 중, 하로 구분된 경제수준에서는 하 수준이 다른 수준에 비해서 계층2에 현저히 많은 빈도를 보였으며, 반대로 계층5에서는 매우 적은 빈도를 보였다($\chi^2=150.36(df=8), p<.001$).

<표 6> 위גיע층별 인구학적 특성의 차이

	변인 (명)	계층1 (명)	계층2 (명)	계층3 (명)	계층4 (명)	계층5 (명)	χ^2 (df)
성별	남자 (1,444)	12.0% (173)	15.5% (224)	16.7% (241)	20.2% (292)	35.6% (514)	75.06*** (4)
	여자 (1,447)	11.4% (165)	9.9% (143)	9.7% (140)	20.2% (293)	48.8% (706)	
거주 지역	대도시 (1,295)	11.7% (152)	13.1% (169)	15.1% (195)	20.7% (268)	39.5% (511)	34.19*** (8)
	중소도시 (1,114)	11.3% (126)	11.7% (130)	9.6% (107)	19.8% (221)	47.6% (530)	
	읍면 (471)	12.7% (60)	13.8% (65)	16.6% (78)	20.4% (96)	36.5% (172)	
학년	초등학교 (708)	15.7% (111)	7.2% (51)	11.3% (80)	7.2% (51)	58.6% (415)	437.23*** (16)
	중학교 (679)	10.9% (74)	7.1% (48)	7.7% (52)	24.2% (164)	50.2% (341)	
	고등/인문 (788)	10.3% (81)	10.9% (86)	15.2% (120)	25.1% (198)	38.5% (303)	
	고등/실업 (308)	11.7% (36)	15.9% (49)	12.3% (38)	29.2% (90)	30.8% (95)	
	학교밖 (420)	9.3% (39)	31.7% (133)	22.4% (94)	20.0% (84)	16.7% (70)	
경제 수준	상 (1,705)	9.6% (164)	10.3% (175)	14.9% (254)	20.8% 355	44.4% 757	150.36*** (8)
	중 (1,246)	12.4% 155	18.1% 226	13.9% 173	22.0% 274	33.5% 418	
	하 (251)	12.4% 31	33.9% 85	13.5% 34	22.3% 56	17.9% 45	

*** $p < .001$

IV. 논의

본 연구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명확한 정책수립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 문헌들 (Bronfenbrenner, 1979; Burt, 1992; McWhirter et al, 2004; 지승희 외, 2006)의 위기청소년 유형에 대한 이론적 혹은 개념적 구분 방식과 더불어 계량화된 통계방식의 구분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방식을 사용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주요 요인들을 찾아내고 잠재계층분석을 통하여 개인의 위기 특성에 따른 위גיע층 파악과 각 계층별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초, 중, 고, 학교밖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승희 외(2006)가 개발한 위기

상황실태조사 척도를 사용하고 요인분석을 통하여 위기의 주요 요인을 파악하였다. 또한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여 개인들의 위기요인 취약 성향에 따른 위גיע층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요인은 폭력, 성매매와 같이 문제행동이 심각한 '비행 요인', 2요인은 따돌림, 괴롭힘, 친구 부재 등의 '대인관계 요인', 3요인은 무단결석, 교사와의 갈등 등 문제행동이 비교적 가벼운 '일탈 요인', 4요인은 '부모갈등 요인' 그리고 5요인은 학습능력 부족과 같은 '학업부적응 요인'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위기청소년의 위험요인이 비행, 일탈 등 문제행동 특성과 가정, 또래, 학교 등 주변 환경과의 갈등문제로 구성된다는 기존 문헌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김동일 외, 2005; 유성경 외, 2000; 지승희 외, 2006).

각 개인들의 위기요인의 취약 성향에 따라 위기의 잠재계층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잠재계층을 분석한 결과 5계층 모형이 통계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에 속할 개인들의 위기 반응 내용을 살펴본 결과, 계층1은 집단 따돌림, 외로움 등의 대인관계 위기 요인에 취약한 개인들이 속할 확률이 컸다. 계층2는 다섯 개 위기요인 모두에게 취약한 개인들이 속할 확률이 커서 고(高) 위험군 계층으로 여겨진다. 계층3은 가출, 흡연 등 일탈 요인이 두드러졌으며, 계층4는 부모와의 심한 갈등 요인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계층5는 5개의 위기 요인이 모두 적게 나타나거나 1개 영역에서 반응이 나타나 저(低) 위험군 계층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윤철경, 2005; Burt, 1992; Rutter, 1979)에서와 마찬가지로 고 위험을 보이는 계층일수록 여러 위기요인을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일한 위기요인을 가지고 있는 비교적 위험이 덜한 청소년들이 다른 문제가 병행하여 나타나기 전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고 위험 청소년의 경우, 단일한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중복되었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다면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각 위גיע층에 따라 정신건강 측면과 인구학적 특성면에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고 위험군으로 여겨지는 계층2에서 우울, 불안, 공격성, 자존감이 다른 계층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 위험군으로 여겨지는 계층5에서는 다른 계층에 비해 정신건강 위험수준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계층1, 3, 4의 정신건강 점수는 계층2와 계층5 사이에 있으면서 하위 정신건강 척도에 따라 조금씩 다른 프로파일 양상을 보여 주었다.

인구학적 특성면에서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에서 남자가 여자에 비해 고 위험계층으로 여겨지는 계층2에 속할 확률이 컸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이 재학 청소년에 비해 계층2에 속할 확률이 컸으며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계층2에 속할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계층별 집단의 특징은 위기청소년들의 위기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각 위기 계층별 위기요인 반응패턴과 정신건강 점수 차이, 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검토해 볼 때, 5개 위기잠재계층은 양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위기의 양적 정도에 따라 고 위험 위גיע층(계층2), 중위험 위גיע층(계층1, 3, 4), 저 위험 위גיע층

(계층5)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다시 중위험 위גיע층에서는 위기의 내용면으로 세분화되어 대인관계(계층1), 일탈문제(계층3), 가족갈등(계층4)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위기청소년에 대한 잠재계층분석을 통하여 위기 계층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최근 들어 위기청소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문헌에 기초해서 개념적 방식으로 위기청소년을 분류했기 때문에, 연구자의 관점과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위기청소년의 핵심 요인을 파악하고 잠재계층분석이라는 통계적 분석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위기청소년들이 어떻게 계층으로 집단화 되는지 살펴보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위기청소년을 위גיע층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구체적인 개입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즉 기존 연구가 위기청소년을 단순히 수준별(예: 고, 중, 저)로 구분함으로써 구체적인 문제 유형과는 별개인 전반적인 개입전략만을 수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계층별 문제 유형을 분류함으로써 계층에 따라 그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개입이 가능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적용할 때 고 위험 계층으로 여겨지는 계층2 위기청소년들에게는 비행, 대인관계, 일탈, 부모갈등, 학업부적응 등 전반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대인관계 중심의 문제를 보이는 계층2 위기청소년들은 또래상담 프로그램, 대인관계 기술 등 사회적 기술 향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벼운 일탈 문제 중심의 계층3 위기청소년들에게는 개입과 예방차원의 적절한 지도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부모갈등이 큰 계층4에서는 가족상담과 부모교육 등 가족중심의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 위험 계층의 청소년들이 정신건강 측면에서 매우 취약했으며, 문제행동의 외현적 표현방식이 큰 남자가 여성에 비해 고 위험군 계층에 속할 확률이 컸다. 그리고 학교밖청소년과 저소득층 청소년이 다른 계층에 비해 고 위험 계층에 속할 확률이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위기청소년 서비스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나 청소년상담 및 관련종사자들이 상담개입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니는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위기 계층별 특징을 보다 세분화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된 정신건강 척도와 성별, 거주지, 학교 등 비교적 협소한 영역의 특징을 조사하여 각 계층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기청소년과 관련된 종합적인 특징들을 검토하여 계층에 대한 특징을 보다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중 학교밖청소년의 경우, 표집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달리 학교밖청소년은 모든 대상을 고르게 표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교밖청소년도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이나 학교밖청소년이 소속된 모든 기관을 다 대표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자료를 수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종단연구를 통해 단일한 문제 행동을 가진 청소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고 위험 위기청소년이 되는 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석영, 김동민, 하창순(2009). **전국청소년 위기상황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상담원.
- 교육인적자원부(2008). **학생변동현황통계자료**.
- 구본용(2005). 위기(가능)청소년 지원모델 개발연구. **지역사회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79-80.
- 권지은(1998). **청소년 비행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선남(1994). **청소년비행관련 변인간 인과적 분석**.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연정(2004). **가출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형수, 최한나(2009). 청소년의 위기 중복 유형 탐색,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21, 2, 521-536.
- 대검찰청(2009). **2009년 범죄분석**. 서울: 대검찰청.
- 박소영(2000). **청소년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봉우, 김태완, 조경옥, 김용인(1997). 농촌지역 중학생들의 체력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연구소 논문집**, 9(1), 75-88.
- 지승희(2003). **청소년비행 위험요소, 보호요소 척도의 개발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지승희, 양미진, 이자영, 김태성(2006).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양미진, 김태성, 이자영(2009). **은둔형부적응 청소년 수준별 현황 및 촉발요인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0(1). 33-53.
- 양미진, 이은경, 이희우(2006). **청소년의 심리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14, 1, 63-76.
- 유성경, 이소래, 송수민(2000). **청소년비행예방 및 개입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윤진, 최정훈(1999).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와 그 대처행동 양식**. 한국심리학회지, 16-35.
- 윤철경, 김성경, 김현주, 박병식, 이봉주, 장해영(2005). **청소년 보호정책 실태와 발전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05-510, 10352.
- 이봉주, 김동일, 정익중, 유순덕(2008). **위기청소년개념정립 및 통계화 방안 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
- 이창호, 김택호, 정찬석, 박재연(2005). **특별지원청소년 지원방안연구**. 서울:한국청소년상담원.

- 한상철(2001). 청소년기 위험행동의 원인 및 보호적 요소와 발달적 모형에 대한 탐색적 연구. *교육학연구*, 39, 4, 291-312.
- Bogenschneider, K., Small, S., & Riley, D. (1994). *An ecological, risk-focused approach-youth-at-risk issues*.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Cooperative Extension, *Technical Report #1*.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urt, C. (1992). *The young delinquents*. New York: Appleton.
- Goodman, L. A. (1972). A general model for the analysis of survey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7, 1035-1086.
- Hagenaars, J. A., & McCutcheon, A. L. (2002). *Applied Latent Class Analysis Model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n, S. C. (2004). Analysis of prediction factors of risk behavior with adolescents at a small cities. *Journal of education psychology*, 18(3), 193-210.
- Kim, D., Hong, S. D., & Yoon, E. (2007). The Validation of Adolescent Risk Scale, Korean *Counseling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Dong-Shin University, Naju, Korea: KCA.
- Lazarsfeld, P. F., & Henry, N.W. (1968). *Latent structure analysis*. Boston: Houghton Mifflin
- Lipsey, M. W., & Derzon, J. H. (2000). Predictors of violent in serious delinquency by age group: a comparative ranking. *Juvenile justice bulletin*. April 2000.
- Magidson, J., & Vermunt, J. K. (2004). Latent Class Models. In D. Kaplan (Ed.), *Handbook of Quantitative Methodology for the Social Sciences*.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McWhirter, J. J., McWhirter, B. T., McWhirter, E. H., & McWhirter, R. J. (2004). *At-Risk Youth: A Comprehensive Response*. Belmont, CA: UBrooks/Cole-Thomson Learning.
- Muthén, L. K., & Muthén, B. (2001). *Mplus : The comprehensive modeling program for applied researchers*. Los Angeles : Author.
- Resnick, G, Burt, M. B., & Novick, E. (in press). *Comprehensive service integration programs for at-risk youth*.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ress.
- Rutter, M. (1979). "Protective Factor in Children's Responses to Stress and Disadvantage". In M. W. Kent & J. E. Rolf(Eds). *Primary Prevention of Psychopathology: Vol 3.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49-74)*. Hanover, NH :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 Sclove, L. S. (1987). Application of Model-selection criteria to some problems in multivariate analysis. *Psychometrika*, 52, 207-333.
- Yang, C. C. (2004). *Evaluating Latent Class Analyses in Qualitative Phenotype Identification*. Computational statistics and data analysis, accepted for publication.

* 논문접수 2010년 1월 29일 / 1차 심사 2010년 3월 4일 / 2차 심사 2010년 7월 5일 / 게재 승인 2010년 8월 2일

* 양미진(楊美珍, Mijin Yang), 한국청소년상담원 조교수. 가톨릭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심리학과에서 상담 및 임상심리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상담 및 교육심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청소년상담원 역량개발실 실장으로 재직중이며, 주요저서로는 청소년상담 이론과 실제, 또래상담, 청소년상담 슈퍼비전 등이 있다.

* E-mail : kybj0910@hanmail.net

* 이자영(李玆嶸, Jayoung Lee),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한양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 E-mail : hycounselor@hanmail.net

* 손재환(孫在煥, Jaehwan Son),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박사수료. 충북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심리학과에서 상담심리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동 대학원 심리학과에서 연구방법론 전공으로 박사수료를 하였다. 현재 한국청소년상담원 기획전략팀 선임상담원으로 재직중이며, 주요저서로는 청소년상담 이론과 실제, 청소년 도박 등이 있다.

* E-mail: kiki5048@hanmail.net

Abstract

Classes of Korea Adolescents at-risk through Latent Class Analysis (LCA)

Mijin Yang*

Jayoung Lee**

Jaehwan S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lasses of adolescents at-risk through latent class analysis (LCA). For this, this study surveyed 3,526 Korean adolescents aged between 12 and 19. They were selected according to proportion of 16 metropolitan administrative units of Korea. As a result, the factor analysis identified five factors of adolescents' risk: delinquency, peer relationship including group bullying, harmless deviation, conflict with parents, and poor academic achievement. In addition, adolescents' risk was found to five class through LCA. The main problems of each class are "peer relationships" in the class 1, "all problems" in the class 2, "harmless deviation" in the class 3 and "conflict with parents" in the class 4. And there are little problems in the class 5. These results may help counselors and teacher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risk adolescent and to prevent adolescent' risk behaviors.

Key words: Adolescents at-Risk, Latent Class Analysis

* Assistant Professor,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 Korea University

*** Senior Counselor,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